

균형과 조화의 두 날개:

두 날개 시스템을 지역교회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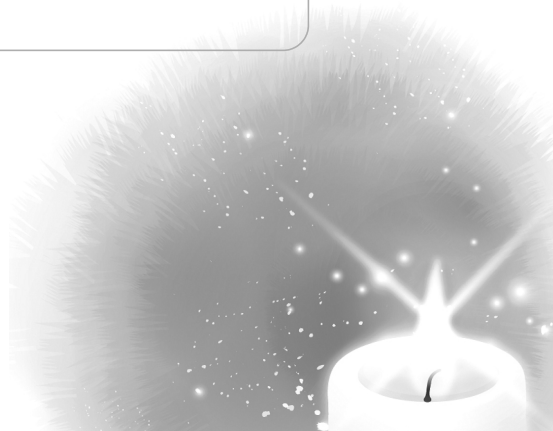
Two Wings of Balance and Harmony:
How Two Wings's System can be applied to the
local church?

이병수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

목 차

1. 서론 | 210
2. 두 날개 시스템의 특징 | 212
3. 두 날개 시스템의 배경과 정의 | 215
4. 두 날개 컨퍼런스 참관기 | 217
5. 결어: 제안, 적용, 도전 및 사람 | 242



균형과 조화의 두 날개:

두 날개 시스템을 지역교회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두 날개 시스템의 특징은 성경과 교회 현실에 기초한 균형과 조화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성경(Text)과 상황(context), 복음과 문화, 이론과 실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영성과 야성, 지성과 감성, 도전과 실험정신, 지역과 세계, 보편과 특수, 이 두 가지 요소가 어느 한쪽을 무시하거나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 종합을 지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시스템은 비판과 수용 및 종합적인 정신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두 날개의 한축인 셀 교회운동은 순수 한국형 셀 교회 개혁운동입니다. 셀은 서구교회의 성공적 예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가운데서 생길 수 있는 시행착오와 폐해를 극복하고 그것이 가지는 실제들을 성경적·목회적 관점에서 파악 한 뒤 강점과 약점, 그것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적용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했다는 점에서 균형적입니다. 두 날개의 균형과 조화 및 종합적인 정신의 예를 한국교회가 적용하여 새로운 방법적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Two Wings of Balance and
Harmony: How Two Wings's
System can be applied to the
local church?*

주요어

균형과 조화, 예배와 셀그룹, 영성과 지성, 성경과 상황, 문화와 현대성

Abstract

Two Wings of Balance and Harmony: How Two Wings's System can be applied to the local church?

Prof. Dr. Byung-Soo Lee

Two Wing systems emphasize the balance and harmony based on the Bible and the local church. They stress balance between text and context, the gospel and culture, theory and practice, God's sovereignty and human responsibility, spirituality and hunger for the truth, intelligency and affection, challenge and enterprise, the local and the world, the universal and the particular. Thus they seek the new integration based on the Bible for the kingdom of God and the growth of the church.

They try to apply the biblical truth to the Korean church for the local pastoral concern for the spiritual and numerical growth of his church. It is expected that the local church can be strong and grow in the power of the gospel by the application of two wings which is based on the Bible text and the Korean context.

Keywords | Balance and harmony, Worship and Cell Group, Spirituality and Intelligence, Text and Context, Culture and Contemporary

1. 서론

본 논문은 풍성한 교회의 두 날개 훈련에 참여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각 교회에서 두 날개 시스템을 적용하여 성경적 기초 하에 건강한 교회 성장을 이루도록 돕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연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째, 풍성한 교회와 두 날개 시스템에 관한 1, 2차 문헌 연구¹⁾, 둘째, 인류학적 현지조사의 참여관찰 및 인터뷰를 통해 수행됩니다. 현지조사에서 사용되는 주요 기법으로는 참여 관찰²⁾(Participant Observation)과 비공식적 및 심층 인터뷰(Informal, In-depth Interview)가 있습니다. 이들 기법은 우리가 일상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이해하려 할 때 누구나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목회자들이 여름 휴가기간 동안 외국교회와 성장하는 국내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고 관찰함으로써 배우는 것입니다. 방문한 교회의 목회자와 교제 가운데 공식적 및 비공식적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선교사들이 현지문화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모든 기업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참여관찰은 현지의 ‘사회적 상황’에 직접 참여하면서 관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회적 상황’이란 필자가 참여한 ‘두 날개 컨퍼런스’, ‘셀 그룹 지도자 세미나’, ‘풍성한 교회 탐방’이 될 수 있습니다.

-
- 1) 1차 자료는 김성곤 목사의 저서를 중심으로 한 자료이고 2차 자료는 두 날개 시스템에 참여한 목회자 및 성도들의 간증이다.
 - 2) 참여관찰은 현지에 들어가서 나올 때 까지 항상 사용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인류학적 현지조사와 참여관찰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 문화인류학회 처음만 나는 문화인류학 일조각 2010. p. 32-47 참조.

현지조사 참여관찰의 특징은 필자가 참여함으로써 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고, 사건에 대한 감각을 느낄 수 있으며, “자신의 시각”으로 사회적 상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 날개 시스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책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지만 이 3가지 요인 때문에 참여관찰의 경험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사용한 ‘자신의 시각’이란 참석한 필자의 세계관, 가치관, 해석의 틀로 풍성한 교회의 두 날개 시스템을 연구하고 설명하고 해석하고 그 틀에 근거한 원리를 제시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필자의 세계관은 성경적, 개혁주의적, 목회 실천적, 선교학적, 사회학적 및 경영학적 관점으로 본 주제를 통합적 및 총체적으로 접근합니다.

참여관찰자(participant observer)는 사회적 상황에 적합한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의 활동과 사람, 물질적 측면을 관찰한다는 점에서 일상적 참여자가 됩니다. 일상적 참여자는 단순히 참여만을 위해 사회적 상황에 참여하는데 반해, 참여 관찰자는 참여와 관찰 모두를 위해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관찰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연구 대상에 대한 관심 어린 심적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통찰력과 호기심, 그리고 타인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이 좋은 참여관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도 두 날개 시스템이 한국교회에 끼친 공헌들을 학문적 호기심과 애정 어린 사랑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참된 지식은 대상에 대해 ‘차갑고’ ‘무감각한 태도’가 아니라 ‘따뜻하고 관심’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 할 때 사랑하고 참되며 섬기는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대상에 대한 친밀함(Rapport)이 매우 중요합니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마음’의 균형과 조화로운 종합적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을 택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지식을 추구하되 그것이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엡4: 15).

2. 두 날개 시스템의 특징

두 날개 시스템의 특징은 성경과 교회 현실에 기초한 균형과 조화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성경(Text)과 상황(context), 복음과 문화, 이론과 실천³⁾,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⁴⁾, 영성과 야성, 지성과 감성, 도전과 실험정신, 지역과 세계, 보편과 특수, 김성곤 목사의 개인적 요소로 강함과 부드러움, 진지함과 유머감각 등 이 두 가지 요소가 어느 한쪽을 무시하거나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 종합을 지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시스템은 비판과 수용 및 종합적인 정신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두 날개의 한축인 셀 교회운동은 순수 한국형 셀 교회 개혁운동입니다. 셀은 서구교회의 성공적 예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가운데서 생길 수 있는 시행착오와 폐해를 극복하고 그것이 가지는 실재들을 성경적·목회적 관점에서 파악 한 뒤 강점과 약점, 그것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적용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했다는 점에서 균형적입니다. 두 날개의 균형과 조화 및 종합적인 정신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
- 3) 자연적 교회성장(Natural Church Development)의 국제본부 총재 크리스티안 A. 슈바르츠는 풍성한 교회가 이론과 실천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자연적 교회성장의 이론을 말하는 것과 그 원리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교회들을 경험하는 일은 차원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생생하게 역사하는지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풍성한 교회는 내가 본 자연적 교회성장의 모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 4) 복음전파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균형 있게 강조하는 책으로 J. I. Packer, *Evangelism & The Sovereignty of God* IVP 1961.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두 날개 시스템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그예를 예배에서 볼 수 있다. 김성곤 목사의 입장은 예배에서 성령임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지만 예배를 위한 모든 준비가 인간의 책임으로 최선을 다하는 균형을 그의 저술에서 강조한다.

김성곤 목사는 한국교회의 패러다임⁵⁾의 변화와 관련하여 “전통 고수 VS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부분에서 3가지의 예를 듭니다.

첫 번째, 그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쳤던 미국교회의 교회성장 프로그램의 무비판적 수용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방법 지향적 패러다임 즉, 기술적 패러다임입니다. 방법 지향적 사고는 광범위하며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데, 기술이나 어떤 조직 그리고 프로그램이 갖춰지면 교회가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것을 도입하여 이식하면 성장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한때 열린 예배가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지요. 열린 예배는 미국의 새들백교회나 월로우크릭교회의 구도자 예배를 한국 교회에 접목시킨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 어느 영향력 있는 교회가 처음 열린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많은 목회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풍토에서 열린 예배는 단순히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그쳤을 뿐, 열린 예배가 구도자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인 전도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열린 예배의 도입으로 부흥을 기대했던 교회들로선 매우 실망스런 일이었지요. ‘이런 성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라. 그러면 당신의 교회는 성장할 것이다.’라는 사고 역시 방법 지향적인 사고로, 이러한 사고의 이면에는 본질을 추구하기보다는 표면에 더욱 관심을 쏟는 의식이 저변에 폭넓게 깔려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교회를 유기체로 보고 그 생명의 법칙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장을 보장해 줄 프로그램을 찾느라 한눈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⁶⁾

두 번째, 영성 지상주의 패러다임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방법 지향적 사고방식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들은 단지 성령의 역사만을 강조합니다. 이런 영성 지상주의 사고방식의 이면에는 일종의 이원론적 세계관이 깔려 있습니

5) 패러다임(Paradigm)이란 용어는 토마스 쿤이 그의 책 『과학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에서 사용하는데 ‘사고의 틀’ 및 ‘세계관’의 의미로 사용했다.

6) 건강한 교회 p. 42.

다. 이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세워 나가는 방법으로써 프로그램, 조직, 계획, 교회 경영법 등을 사용하는데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⁷⁾

세 번째, 김성곤 목사는 앞에서 언급한 양극단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경에 기초한 균형과 조화의 종합적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교회의 성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란 관점입니다. 우리는 단지 성장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고전3:6).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도록 심고 물을 주는 것을 우리의 몫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검증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목회철학을 소중히 여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프로그램이나 방법에 매달리지 않고, 어떤 한 요소만을 강조하여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았습니 다”⁸⁾. 다시 말해 균형과 조화를 강조한 것입니다.

김성곤 목사가 두 날개 시스템을 한국적이며 세계적인 모델로 제시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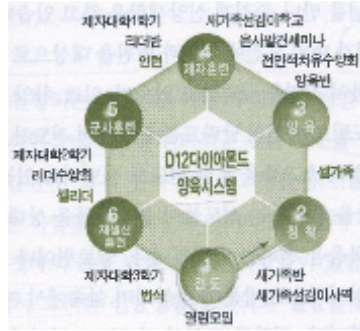
“두 날개를 가진 건강한 셀 교회 운동은 가장 한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두 날개를 가진 건강한 셀 교회를 세우는 D12 다이아몬드 양육시스템은 세계 어느 곳, 누구에게 적용해도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⁹⁾

7) 건강한 교회 p. 43.

8) Ibid.

9) 건강한 교회 p. 20.

D 12 다이아몬드 양육시스템



3. 두 날개 시스템의 배경과 정의

1994년 5월에 장년 20여명이 출석한 가운데 개척으로 시작한 풍성한 교회의 두 날개 시스템은 한국적 교회 상황의 문제의식과 고민 속에서 시작했고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에 목표를 두고 시작했습니다.

3.1. 문제의식

“그동안 교회 성장운동의 문제점은 좋은 열매 보다 많은 열매 맺기에 관심을 두므로써 수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무리한 방법론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많은 그늘과 상처들이 있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¹⁰⁾ 이런 현실 속에서 출발하게 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셀 교회

10) 건강한 교회 p.19.

운동은 “교회성장에 대한 열매보다는 뿌리에 양보다는 질에 성장보다는 건강에 관심을 두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지는 성장 본질에 대한 도전입니다.”¹¹⁾ 또한 두 날개 시스템은 건강한 중소교회의 모델이 많지 않다는 것, 교회성장에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2. 두 날개의 정의

“두 날개는 대그룹 예배의 날개와 소그룹 셀 모임의 날개다. 대그룹 예배는 목회자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질적 특성을 강조한다. 또한 소그룹 모임은 평신도 중심이 되어 전도하는 열린 모임과, 영적 가족이 되어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셀 모임이다. 따라서 두 날개 시스템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사역을 담당하면서 대그룹과 소그룹의 두 날개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표이다.”¹²⁾ 빌백험은 제2의 종교개혁에서 이것을 양 날개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날개는 지금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대 그룹 교회를 말하는 것이며, 또 다른 날개는 작은 교회인 소그룹을 말한다.”¹³⁾

김성곤 목사는 이 두 날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그것이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두 날개 교회는 오로지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임을 확신한다.”¹⁴⁾

11) Ibid.

12) 목사라서 행복합니다 저자 서문 참조

13) Ibid. p.19.

14) 목사라서 행복합니다 저자 서문 참조

4. 두 날개 컨퍼런스 참관기

2011. 02.21(월)~24(목) 부산 벡스코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풍성한 교회 주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셀 교회 컨퍼런스”에 필자는 참석했습니다. 참석하게 된 계기는 두 날개 선교회 교수회 회원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참관하는 동안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석인원이 1만 명 그것도 4일 동안이라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부산 및 여러 지역의 목회자, 선교사 및 청소년 사역자 심지어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본, 대만, 중국 및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북미와 중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한국선교사와 현지인들이 참석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1970, 80년대 여의도를 중심으로 빌리 그레함 목사의 방향, 김준곤 목사의 CCC 대회, 한경직 및 조용기 목사를 중심으로 대형집회 모임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 그 많은 성도들의 대형 집회는 오늘날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난 몇 년 동안 부산의 대형교회들이 중심으로 부산의 벡스코 행사에 2만 여명이 참석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날개의 컨퍼런스의 참석한 숫자가 1만 명, 그것도 4일 동안, 무엇보다도 단 회적이 아니라 거의 매년마다 10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이 놀랍기도 했습니다.

둘째, 참석자들의 지역을 볼 때 부산 및 영남지역의 참석자 보다 수도권에서 참석한 숫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독교회의 세미나 및 컨퍼런스의 허브(Hub)는 서울 및 수도권이었습니다. 조용기 목사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교회성장 세미나, 옥한흠 목사의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하용조 목사의 온누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성령축제 등 모든 것이 서울이었고

그 서울로 수많은 지방의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었고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풍성한 교회 두 날개 컨퍼런스에 한국교회의 ‘변방’인 부산으로 전국 및 세계 여러 지역의 교회지도자들이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수도권은 사람, 돈, 정보 그리고 심지어 지방의 교인들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습니다. 지역의 공동화, 교회의 공동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부산을 포함한 지역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의 많은 성도들이 부산지역의 풍성하나 교회 주최 두 날개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것은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유쾌한 반란’이었습니다. 이 ‘반란’이 어떻게 계속될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바람은 이 ‘유쾌한 반란’이 두 날개 컨퍼런스에 참석한 모든 교회와 목회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꿈꾸는 것입니다. 대주교 헬더 카메라가 말했습니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됩니다.”

셋째, 이 대규모 행사를 풍성한 교회, 단일교회의 힘으로 치러내었다는 것입니다. 1994년에 개척한 교회가 이일을 해 내었다는 것이 놀랍고 참석한 모든 교회들에게 좋은 도전이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풍성한 교회가 강조하는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철학, 은사 중심의 다양한 인재 양육과 은사 배치, 제자훈련을 통한 철저한 헌신의 목회철학을 적용하고 실천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참석한 모든 교회가 이 원칙에 입각해서 실천하면 누구나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갖게 한 것입니다.

넷째, 도전정신 및 격려의 마음이었습니다. 김성곤 목사는 이 정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풍성한 교회는 “대형교회에 비한다면 형편없는 숫자이며 예배 홀 수용인원이 230여명에 불과한 소형교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한다는 것이 무모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교회와 같은 전국의 90%나 되는 작은 교회에 소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1년에 500여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는다면 비통해하는 조국의 교회들에게, 개척교회는 더더욱 힘들다는 좌절감에 묻혀있는 목회자들에게 소망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15)

다섯째, 복음 안에서 영적, 지성적, 정서적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총체적·전인적 존재¹⁶⁾입니다. 전인적 존재라는 말은 영과 육, 지성과 감정, 시각과 청각, 합리와 비합리(신비), 복음과 문화의 욕구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만족하고자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¹⁷⁾.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표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인적 치유¹⁸⁾라고 할 수도 있겠죠.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겐은 교회를 ‘거대한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치료하고 필요를 만족하게 하는 거대한 곳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전인적·총체적 접근이어야 합니다. 선교학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통전적 접근(Holistic Approach)입니다. 이 통전적 접근을 두 날개 컨퍼런스와 풍성한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풍성한 교회 두 날개 지도자 훈련 및 “양육반은 입학과 동시에 개강 수양회로 전인적 치유수양회를 가집니다. 전인적 치유수양회란 이름 그대로 전인적 치유가 일어나는 수양회입니다. 영적, 심적, 육적인

15) 건강한 교회 p.33.

16) C. A. 반 퍼센 지음/손봉화·강영안 옮김 몸·영혼·정신: 철학적 인간학 입문 서광사 1987. p.7.

17) 문화인류학자 말리노프스키는 문화를 생물학적·기능적 접근으로 파악하는 가운데 문화란 “인간의 본능과 필요를 만족시키는 과정과 결과의 산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그의 문화관을 생물학적·심리학적 기능주의적 문화관이라고 한다. Grunlan and Mayers, Cultural Anthology, 1979, p. 32.

18) 건강한 교회 p.89.

치유가 모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철저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진행됩니다.”¹⁹⁾

많은 현대인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그곳이 원 스톱 서비스로 소비자의 필요를 한꺼번에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두 날 개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것도 그런 유익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무 상업적으로 접근하고 생각한다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취급합니다. 이것이 칼빈을 비롯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일관된 생각이었습니다. 칼빈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 타락과 구원의 관점에서 역사와 자연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영역이 우주적(Cosmic)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영역도 우주적, 타락의 영역도 우주적, 그리고 구원의 영역도 우주적이어야 합니다²⁰⁾.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과 교회가 다루어야 할 범위가 우주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타락한 이후 삶의 전 영역을 구원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이것을 개혁주의자들은 선교로 보았습니다²¹⁾.

여섯째, 종합입니다. 오늘날은 융합(融合, Fusion)과 통섭(通涉, Consilience)의 시대입니다. 풍성한 교회의 두 날개 시스템은 서구의 교회의 장점과 한국교회의 다양한 제도와 조직을 성경에 기초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게 종합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자선교회²²⁾, 크리스티안 슈바르츠의 자연적 교회성장

19) Ibid.

20) 알버트 윌터스 지음/양성만 옮김, 창조·타락·구원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9

21) Reid, Stanford W. 1983. Calvin's Geneva: A missionary centre. The Reformed Theological Review 42: 65-74.

22) 제자선교회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연령과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것으로서, 거듭난 한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것을 훈련의 최종목표이었다. 김성곤 목사는 제자선교회에 그의 목회와 두 날개 컨퍼런스에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

(Natural Church Development), 랄프 네이버(Ralph W Neighbour) 『셀 교회 지침서』,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온누리 교회의 성령 축제 및 문화사역, 빌 하이벨스의 윌로우 크릭 교회와 릭 와렌의 새들백 교회의 장점을 수용하고 그것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토착화 한 것입니다.

특히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과 온누리 교회의 성령축제 및 문화사역이 한국교회와 일본 교회에 끼친 영향은 적지 않았습니다. 연구자가 두 교회를 비교하고 평가한다면 사랑의 교회 옥한흠 목사는 한국의 선비적 목회자로 제자훈련을 통해 한국교회와 일본 대만 홍콩 및 싱가포르 등 특히 동아시아 기독교회에 정착시키고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각 나라마다 문화적 차이들이 상존하지만 유사점 중의 하나는 유교 문화권²³⁾이라는 것입니다. 이 배움의 선비 문화적 요소가 옥한흠 목사의 성경공부를 중심한 제자훈련과 코드가 맞지 않았을까요.

국외적으로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1970-80년대 강남의 중산층들의 지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는 부흥사 위주의 부흥회 및 기도원 위주의 영적 부흥주의 (Revivalism)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성장에 공헌한 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흐름에 대해 식상해하고 성경에 대한 깊은 지성적 욕구에 목말라 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옥한흠 목사의 성경적 제자훈련은 신선하게 느껴져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랑의 교회와 제자훈련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을 3가지로 요약 한다면 시대적 흐름에 부응한 점, 제자훈련이라는 제도, 그리고 옥한흠 목사의 인격과 한국의 선비적

자 선교회에서의 양육과 훈련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하루의 3시간의 기도, 잡념 없이 하루 35장씩 성경읽기, 경건서적 읽기, 수레바퀴의 삶, 제자도등.”

23) 새뮤얼 헨팅턴 지음/이재희 옮김 문명의 충돌 김영사, 1998. p.141

지성이 함께 조화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성령축제를 통한 영성과 문화사역의 강조는 신앙의 세계에서 지성적 요소가 채울 수 없는 성령의 감성적 및 문화적 욕구를 채워주었습니다. 하용조 목사가 그것을 간과하고 의도해서 강조한 것이기 보다는 시대적 상황이 그런 필요를 채우도록 준비되었고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 가운데 하용조 목사²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영적, 문화적 요소로 섬세하게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적 요청을 하용조 목사가 꿰뚫어본 점도 있다고 봅니다. 온누리 교회의 성령사역과 문화의 강조는 그 당시 오순절 계통 교회의 성령의 사역과 유사점도 있으면서 차이점도 있습니다. 유사점으로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강조했던 방언과 신유 및 성령의 사역을 소홀히 하지 않되 차이점으로는 성령의 사역²⁵⁾ 중 예술과 문화에 나타나는 심미적 요소에 목말라 했던 성도들에게 고품격(?)으로 표현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여한 점입니다. 그것이 온누리교회의 성령축제 및 문화적 특징들이 그 당시 중산층 및 젊은 층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력 있게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사랑의 교회의 지성적 요소와 온누리 교회의 성령의 영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를 종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물론 오정현목사가 부임한 뒤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이 가지는 강점인 지성적 요소를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던 성령의 영성과 감성적 문화적 요소는 오정현 목사 부임 이후 강조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두 교회만을 지성과 영성의 대표적 교회로 언급되는 것이 일부 독자에게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와 못지않게 아니 이보다

24) 하용조 목사가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교회 개척 경험도 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25) 출애굽기 31: 1-11은 성령의 예술적 사역을 잘 설명하고 있다. 헨드리쿠스 벌코프의 『성령론』 p. 152 참조 황승룡역 성광문화사

도 더 훌륭한 교회와 목회자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교회를 예로 든 것은 두 교회가 지성과 영성 및 문화적 감성의 대표적 ‘유형’으로 쉽게 이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그러면 사랑의 교회가 성령의 역동적 요소가 없었던 것이냐? 온 누리교회는 지성적 요소는 없었던 것이냐?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두 교회에 두 가지 요소가 함께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교회가 두 요소 중 목회자의 은사와 성품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의 문화적 분위기 가운데 한 면이 강조되고 다른 면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된 측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것인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균형과 조화를 종합하는 노력이 발견 될 수 있는 여러 예 중의 하나가 두 날개 시스템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상황화입니다. 외국제품의 농산물이 국내로 급속히 들어오면서 국내 농·수산업에 속한 사람들이 신토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느 학자가 신토불이(身土不二)²⁶⁾도 중요하지만 학토불이(學土不二)²⁷⁾도 매우 중요하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한국적 상황에 맞지 않을 때 그것은 ‘이질적’ 혹은 ‘외래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 문화인류학적으로 찰스 크래프트(Charles Kraft)의 역동적 등가성(Dynamic Equivalence)²⁸⁾이란 이론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적실성(Relevance)있게 전할 때 현지인들에게 복음이 더 역동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두

26) 몸과 태어난 땅은 하나라는 뜻으로, 제 땅에서 산출(產出)된 것이라야 체질(體質)에 잘 맞는다는 말

27) 학문도 한국적 토양과 상황을 고려해서 접근하고 다루어야 할 것을 신토불이와 비교해서 사용한 말

28) Charles Kraft, *Christianity in Culture*, Orbis 1990.

날개 시스템의 강점입니다. 김성곤 목사는 그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한국인은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계 최고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유명브랜드라 해도 우리의 체형과는 분명 다릅니다. 목회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에서 성공한 성장프로 그래프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생각은 무지에 가까운 단순함입니다. 한국인은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듯 교회성장 프로그램 또한 우리의 문화와 정서에 맞도록 리모델링하는 작업이 최소한 필요하며, 더 중요한 것은 충분한 신학적 근거와 현장 검증이 전제 되어야합니다”. 29)

여덟 번째, 풍성한 교회의 차별성 있는 공헌이었습니다. 그 공헌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표준화’를 제공한 것입니다. 사실 다국적 기업 맥도날드(McDonald)는 표준화의 신화를 이룬 기업이었습니다. 패스트푸드(Fast Food)에 대한 기준이 없었던 시절 기준을 만든 회사가 바로 맥도날드입니다. 요리하는 법, 청소하는 법, 직원들이 몇 시간 마다 손을 씻어야 하는 것 까지 거의 모든 것에 관한 세세한 기준을 지침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필자는 풍성한 교회의 두 날개 훈련의 지도자 교육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³⁰⁾. 일본에서 온 목회자들과 대화 중 그들에게 두 날개 훈련에 참석하게 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쉽고 단순한 ‘매뉴얼’을 제공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일본은 철저한 매뉴얼 사회입니다.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 대처방법이나 모든 것이 매뉴얼에 의존하는 사회입니다. 그들이 두 날개 시스템을 좋아하는 이유를 그 나라의 문화적 상황에 볼 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른 하나는 두 날개 훈련이 무엇보다도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29) 건강한 교회 p. 19.

30) 2011. 7.12(화) 풍성한 교회 두 날개 훈련에서 10여명의 일본교회 목회자들과 만남(통역: 일본 선교사 설은주)

접이라는 것입니다. 참석한 일본인 목회자들 가운데는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도 받고 온 누리 교회의 훈련 프로그램을 받은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통적 대답은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이 배우고 교육하는 것은 좋은 데 전도 및 재생산의 강조가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것입니다³¹⁾. 그런데 두 날개 훈련은 열린 모임의 첫 단계에서 바로 전도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날개 컨퍼런스, 지도자 훈련 및 여러 강연에서 필자가 반복적으로 들은 것은 “꿈에도 재생산”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상황처럼 기독교인 비율이 매우 낮은 곳에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데 두 날개 훈련은 열린 셀 그룹이 시작하자마자 전도를 바로 시작하고 끊임없이 영적 재생산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필자는 한국교회에 공헌한 훌륭한 교회와 목회자들이 주변에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초대형교회의 목회자와 방송 설교가, 그 가운데 부산지역의 합동 교단의 수영로 교회, 합신 교단의 호산나 교회, 통합 교단의 산성교회, 고신교단의 포도원 교회 등이 있습니다. 지면 관계상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국 및 부산지역의 교회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각기 나름대로 교회와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성한 교회와 두 날개 훈련 프로그램이 많은 목회자와 교회에 시대적 상황에 맞게 두 날개 시스템이라는 ‘표준화’를 제공함으로써 한국과 세계교회에 끼친 공헌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컨퍼런스가 주는 유익이 이론적 및 실제적 적용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모든 순서를 통해 은혜를 받는 다는 것입니다. 컨퍼런스

31) 이 부분에서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이 전도의 중요성을 무엇보다도 강조했다고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자는 일본 현지 목회자들의 인터뷰의 내용을 앞에서 언급한 설은주 통역사에 기초했음을 밝힌다.

기간 동안 모든 학문적 세션이후 찬양과 기도회를 통해 모든 참석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서구 교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빌 하이벨스 목사의 월로우크릭교회의 ‘구도자 예배’, 릭 와렌 목사의 새들백 교회의 ‘열린 예배’ 및 ‘목적이 이끄는 삶’등 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놓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강조해야 할 것은 한국교회의 간절한 합심기도 및 통성기도입니다.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컨퍼런스에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즐기거나 잠잘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필자가 미국 유학 생활 중 다녔던 학교 은사인 노턴(Dr. Northon)교수가 한국교회의 통성기도와 미국교회의 조용한 기도를 비교하면서 지적한 말입니다. 그는 한국교회의 통성기도가 가지는 강점을 미국교인들이 조용히 기도하면서 조는 것을 보거나 느낀 것을 비교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 말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서구교회와 선교지 교회에 두 날개 컨퍼런스가 본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음을 같이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열정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하는 통성 기도는 유익이 많습니다. 함께 통성기도 하다보면 시끄러워서라도(?) 졸 수 없고 때로는 옆에서 흐느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눈을 떠 살짝 보거나(?) 들으면 내 자신도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져서 기도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앙에서 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지성은 잘못하면 ‘무미 건조하고’ ‘냉랭하고 차갑고’ ‘회석화’ ‘박제화’ 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생명력에 치명적인 ‘독’(毒)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지성과 신학, 두 날개 프로그램과 이론이 ‘성육신(Incarnation)’ 및 ‘체화’(體化, Personalization)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힌 채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현대교회는 첨단 현대 문화의 세련됨과 ‘기도의 영성과 야성’의 균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거스틴이 기독교 철학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주장한 것처럼 한국교회는 성경공부와 함께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입니다. 두 날개 컨퍼런스에서 모든 순서가 끝날 때 마다 기도회를 한 것은 계속 강조되고 유지되어져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할 모범이었습니다. 참석한 외국인 그리스도인들도 한국교회의 부흥의 요인이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본국교회에서 실천할 것으로 필자는 판단합니다. 많은 한국교회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풍성한 교회만 유일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두날개 컨퍼런스에서 모든 학문적 순서 이후에 기도로 마친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열 번 째, 컨퍼런스 기간 동안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도 중요한 체험의 현상이었습니다. 공중파 방송국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큐시트에 의해 분 단위로 진행되는 컨퍼런스, 다양한 음악의 시도 예를 들면 풍성한 교회의 여성중창단에 의한 재즈풍의 흑인영가 찬양, 한국의 전통 음악에 의한 국악찬양 등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풍성한 교회의 주일예배, 저녁예배에서 시도되고 검증된 이후 컨퍼런스에서 시연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즈풍의 흑인영가의 찬양은 “시스터 액트”의 영화를 실험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잘 아시는 바대로 이렇습니다. 우연하게 살인현장을 목격한 삼류 여가수가 살인범들의 추적을 피해 수녀원에 들어가게 되어 가짜 수녀가 됩니다. 수녀원에 있다 보니 성당의 미사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성가대의 지휘까지 맡게 됩니다. 그녀는 그동안 성당에서 해왔던 전통적인 성가방식을 따르지 않고, 현대적 재즈풍으로 바꾸고 발랄한 율동까지 섞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동안 성당은 몇 명의 노인들이 남아 자리를 채우는 경로당 같았고, 이들과저도 미사 시간 내내 즐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가가 바뀌자 즐기만 했던 그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성당 밖에 있던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리듬의 음악이 들려오자 성당 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몇 명의 노인들만 자리를 지키던 넓은 성당은

곧 젊은이들로 가득차면서 놀라운 감동이 전개됩니다. 음악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성가의 곡이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변화되고 적용될 때 일어나는 반응을 교회는 진지하게 생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맞춘 변화의 반응을 김성곤 목사는 풍성한 교회와 두 날개 시스템 그리고 컨퍼런스에 적용함으로 참석자들이 변화와 신선함을 느끼고 돌아가 지역교회에 적용할 것으로 우리가 예측 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여기서 모든 교회들이 영화 ‘시스터 액트’에 나오는 재즈풍의 찬양과 국악찬양을 매 주일 마다 연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즈풍 음악이든, 국악의 음악이든 기존의 찬송가든 즉 음악의 다양성, 현대성을 무시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것만을 고집하는 가운데 젊은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음악의 다양성을 시도하고 살리자는 것입니다. 찬양의 중요성을 생각 할 때 성 어거스틴(Saint Augustine)의 명언이 생각납니다. “한번 찬양하는 것이 두 번의 기도 효과와 같다.” 이 찬양의 다양성과 찬양의 능력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힐 송(Hill Song-호주 시드니 소재) 교회 찬양을 보십시오. 필자는 그 찬양을 볼 때 마다 오늘날의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착하고 예쁜 멋진 수많은 젊은이들이 찬양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남자든 여자든 못생기고 그저 그런 젊은이들만 있는 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 좋고, 실력 있고 멋지고 귀한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과 교회로 향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찬양에서 느낀 점을 몇 가지 언급한다면 a.찬양가사가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복음적입니다. b. 찬양 인도자의 영성입니다. 그 제스처도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성은 하나님 앞에서(Coram Deo)의 성령에 사로잡힌 진정성입니다. c. 찬양 인도자의 기도하는 멘트는 성경적이고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d. 현대성입니다. 찬양악기, 음향, 섬세하고 탁월한 간접 조명, 영상기술(은혜 받는 성도들의 눈물과 감격하는 모습 포착), e. 찬양 인도자들의 복장의 다양성(똑같은 복장을 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복장은 자유로우면서도 품위 있고 천박하지 않았습니다. 설교자이든 찬양 인도자이든 복장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치나 명품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감성적으로 호감을 줄 수 있는 복장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인도자로 청중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청중과 성도에게 취할 수 있는 진정한 서비스요 봉사입니다. 예배의 영어 표현이 **Worship Service**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친 비호감 복장은 예배와 찬양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그리스도인의 복장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칼빈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면적 요소를 매우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양 (**appearance**)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더럽고 찢어진 옷을 입는 것은 그 사람을 망신시킨다면 깨끗하고 단정한 옷 차림이든 그로 하여금 많은 호감(**favor**)을 받게 된다”³²⁾ 고 주장했습니다. 몸빼 바지나 추리닝 복장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만 복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f. 때로는 찬양 속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느끼게 하는 촛불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영화 속에서나 좋은 식당에 가면 간접 조명과 함께 식당 테이블에 위에 있는 은은한 촛불을 보기도 합니다. 찬양에 이런 은은한 분위기도 사용하면 어떨까요.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 천주교 및 동방교회가 가지고 있던 예전 및 화려한 종교적 분위기를 너무 신비적, 사변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배격하였습니다. 혹은 오직 말씀만을 강조하는 가운데 앞에서 언급한 요소를 의도적으로 억제하거나 무시하거나 소홀히 한 것이 많았습니다. 종교개혁이 강조한 말씀 중심을 한 치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천주교나

32) William J. Bpuwsma John Calvin: A sixteen Century Portrait Oxford, 1988. p.194. W. J. 부스마 지음/이양호 박종숙 옮김 칼빈, 나단 1991. p. 453.

동방교회가 가지는 문제점은 지적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좋은 것마저 다 부인하다면 그것도 좋지 못한 태도입니다. 문제는 항상 극단에 대한 반작용 가운데 한쪽으로 다시 기울어지는 또 다른 극단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 후예들 가운데 일부는 루터와 칼빈의 개혁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개신교 학문주의(Scholasticism)에 입각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지성적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주지주의적 경향 때문에 개혁자들이 강조했던 성령의 사역³³⁾ 및 생명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독일을 중심으로 한 스페너(Spener)와 프랑케(Franke)의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기독교회의 주지주의적 요소에 대한 반동으로 나왔지요. 이런 흐름 가운데 슬라이어마허는 종교를 “절대 의존의 감정”(Gefühl)³⁴⁾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신학이 가지는 문제점이 있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가 강조한 종교가 가지는 감정적 측면입니다. 이것은 이미 청교도 칼빈주의자 조나단 에드워드(1703-158)가 그의 책³⁵⁾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감성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가운데 마음껏 표현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마음껏 즐기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일 오후는 찬양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수요일은 예배가 아니라 수요일기도회로 나가야 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오직 말씀을 강조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찬양의 중요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사43:21).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적 빅뱅(Big Bang)을

33) B.B. Warfield, Calvin and Augustine,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80. 이 책에서 워필드는 칼빈을 성령의 유일한 신학자로 규정한다. pp. 481-487.

34) Über die Religion: Reden an die Gebildeten unter ihren Verächtern 『종교에 관하여: 종교를 멸시하는 이른바 교양인들에게 고함』

35) 청교도 칼빈주의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종교적 감정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Jonathan Edwards, Religious Affections, Multnomah 1984.

기대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세속화와 저출산의 위기 가운데 교회 청소년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및 청소년 사역이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 및 선교 단체에서는 ‘다음 세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자들은 중학생들의 사역에서 겪는 고충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 사역자들 가운데는 엄살을 부리기도 하지만 중학생 사역을 ‘선교지’로, 심지어 ‘미전도 종족 사역’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접근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 기도의 영성과 함께 청소년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그 문화에 익숙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화를 접착점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악이나 예배의 형식에서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하지만, 시대에 따라 형식은 변화될 수 있고 변화 되어야 할 때 그들의 문화와 공통하는 것을 접점으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힐 송 교회의 찬양과 ‘시스터 액트’ 영화가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음악, 미디어, 음향 및 조명도 예배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시대에 맞게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점에서 두 날개의 시스템이 ‘복음의 절대성’과 ‘문화적 현대성’의 ‘균형과 조화’가 수도권 교회 및 젊은 사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만족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의 청소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 받고 현대적 감각의 다양한 예배프로그램을 즐기는 가운데 많이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수도권의 교회와 청소년들이 문화적 감각과 현대성에 지역보다 더 익숙해 있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이것을 김성곤 목사의 “예배를 철저히 기획하라”는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감 있는 예배는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살아 움직입니다. 이 예배의 특징은 형식의 파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철저히 준비된 예배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로우 크릭 교회의 예배 담당자는 ‘예배 중 5초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틈이 생기는 한 예배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철저히 준비하지 않고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최고의 예배, 축제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지 연구하여 예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기획한다는 말이 생소합니까?** 미국 월로우크릭교회나 새들백교회는 온갖 정성과 시간을 다해 예배를 철저히 기획하고 있으며, 예배 시간 내내 지루하지 않게 단 5초의 틈도 주지 않는 최고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실제로 이와 같은 예배를 기획하고 끊임없이 예배를 갱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들은 축제로서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³⁶⁾

최선을 다해 최고의 작품을

“우리는 예배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사용하십니다. 세상에서도 공연을 한 번 올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합니까? 연습하고 고치고 또 연습해서 수정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함은 두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토요일이면 예배 리허설 시간을 가집니다. 리허설은 사전에 기획된 큐시트(Cue-Sheet: 예배 시나리오)를 통해 진행됩니다. 큐시트에 따라 모든 예배의 순서를 철저히 연습합니다. 최선을 다해 최고의 작품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예배국의 모든 팀원들이 모여 리허설을 하고 주일예배 1시간 전에 모여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회를 가집니다. 이때는 담임목사의 영감 있는

36) 건강한 교회 p.190.

설교와 예배의 모든 진행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³⁷⁾

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해야 합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선의 것이란 현대 첨단 미디어를 사용한 기술적인 방법입니까? 이것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고 잘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말이 전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의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정확 지식에 기초해서 드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단어는 아다(אָדָּא)입니다. 이 단어는 아담이 하와와 부부관계에서 동침³⁸⁾할 때 사용하는 용어와 똑 같습니다. ‘안다’는 것이 참 묘한 단어입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정도도 천차만별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호세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번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6:3-6).

패커(J. I. Packer)는 그의 책³⁹⁾에서 개혁주의 신학자 칼빈⁴⁰⁾ 전통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이 시대에 다시 강조하였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지식(신론 및 신관)에 기초합니다. 이사야⁴¹⁾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

37) Ibid.

38) Genesis 4:1

39) 패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6.

40)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 1권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존재를 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지식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41)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 하도다 하더라...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라도 하

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यो”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태도요 자세입니다. 이사야는 그의 책 전반부(1-39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강조하고 난 뒤 위로와 구원의 하나님(40-66장)을 강조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 교회는 위로와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와 “두려움과 떨림”(빌2:12)의 예배도 드려야 합니다. 루돌프 오토(Rudolf Otto)⁴²⁾는 명저 『Das Heilige』⁴³⁾(성스러움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a. 거룩한 존재에 대한 ‘두려운 신비’(mysterium tremendum)로 묘사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죄인된 ‘피조물적 의식(creature consciousness)’⁴⁴⁾으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함을 오토는 강조 합니다. b.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 이끌리게 하는 매혹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fascinans, fascinating).⁴⁵⁾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축제적 예배도 있어야 합니다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의 예배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시 51:17)이고 하나님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였더라.”(이사야 6:3-5).

42) 오토는 종교학자로 유명하지만 조직신학자였다. 그의 책은 25권을 거둬하는 종교학의 고전이다. 슬라이어마허 이후의 종교의 중요성과 종교가 가지는 비합리성(신비)을 논리적으로 해석함으로 끼친 공헌이 크다고 하겠다.

43) 루돌프 오토지음/길희성 번역 『성스러움의 의미』, 분도출판사.

44) 창세기 18:27절에 이것을 예시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상계서

45) 성스러움의 의미 6장 매혹성 참조. 루터의 말을 오토는 이렇게 인용한다. “우리는 성스러움에 두려움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으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간다.” 오토는 두려움과 매혹의 이 대조적 조화가 종교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p.79.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이사야 66:1-3).

18세기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s, 1703-1758)를 중심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진노에 손안에 든 죄인”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들던 성도들이 자신이 마치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두려움 가운데 회개하고 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축제’와 ‘거룩’의 예배가 함께 존재해야 합니다. 축제의 예배에 거룩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축제의 예배가 즐거움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인위적 요소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축제와 거룩의 예배는 참된 예배 때마나 공존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중 어느 것 한가지의 성격으로만 드려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못 박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한국 예배는 거룩과 축제의 예배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 성 여인에게 요구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거룩과 축제의 예배가 아닐까요. 어떤 점에서 하나님은 이 거룩과 축제의 예배에 ‘끓주려’ 계십니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거룩과 축제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예배에 목숨 거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청교도들은 “나는 정확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고백 했습니다”⁴⁶⁾.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우리의 예배의 준비에서도 이와 같이 정확하

고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두 날개 컨퍼런스에서 필자가 경험한 것은 예배에서 ‘축제’와 ‘거룩’ 및 완벽을 추구하는 노력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참된 예배에서 모든 성도들은 ‘진정한 자신을 만나’⁴⁷⁾는 놀라운 축복을 누립니다.

열한 번째, 원리의 중요성입니다. 영국의 선교학자 롤랜드 알렌(Rolland Allen)은 『바울의 선교방법과 우리의 방법』이라는 책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원리가 시대와 환경이 변하더라도 현재의 선교사가 따라야 할 보편성과 영원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곤 목사는 제자선교회에서 훈련, 자연적 교회성장(Natural Church Development)⁴⁸⁾에서 건강한 교회의 기준과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는 그 원리의 중요성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선교단체에 배운 것을 지금 우리교회 안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선교회에서 제자를 삼는 원리와 비전의 마인드를 배운 것이지 그 방법까지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⁴⁹⁾ 그는 자연적 교회성장으로 부터 성장하는 교회의 8가지 핵심적 원리⁵⁰⁾를 배운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한 교회의 모델을 찾아 그대로 교회에 접목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원리들을 추출하여 그 원리를” 지역교회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두 번째, 셀의 중요성입니다. 열린 셀 모임은 총 12주 진행되는데 첫

46) Leland Ryken, *Worldly Saints*, Zondervan. 1986. p.1.

47) 요하야김 바흐 『비교종교학』 민음사, 1988.

48) 슈바르츠의 자연적 교회 성장이론은 현대 교회의 성장이론이 기술적 방법에 많이 의존함으로 인해 진정한 교회성장이 나타나기 보다는 오히려 많은 부작용 초래했다고 보았고 이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교회성장은 기술적이고 인본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생적이고 자연적 원리에 그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49) 건강한 교회 p. 38-39.

50)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전인적 소그룹, 필요 중심적 전도, 영감 있는 예배, 열정적 영성, 기능적 조직, 은사 중심적 사역, 사랑의 관계.

주부터 7명의 대신자를 품고 전도를 시작 합니다⁵¹⁾. 셀 모임에서 강조되는 것은 세 가지인데 재생산, 전인적 셀 공동체의 삶 그리고 열린 모임 장소입니다. 이것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 재생산: 김성곤 목사는 전인적 셀의 목표는 모든 구성원들이 생명을 탄생시키는 “재생산”⁵²⁾과 전도임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건강한 교회는 당연히 전도 지향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일 수 있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열정적 영성, 기능적 조직, 전인적 소그룹 등은 모두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사랑의 관계 역시 전도에 관심을 가질 때 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 넘쳐 썩지 않는 것처럼 공동체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 본질에 대한 강한 집착이 돋보인다. 잃은 영혼을 찾고, 세우며, 재생산해내는 교회의 본질 말이다.”⁵³⁾

- ▶ 공동체성: 현재 한국사회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경제적 양극화 현상 가운데 생긴 공동체성의 위기입니다. 이 양극화 현상으로 야기된 공동체성의 위기가 지금 ‘한국사회 및 교회’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의 양극화 현상은 큰 교회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작은 교회는 더 작아져 가는 현실입니다. 초대형교회들은 마치 대형 슈퍼마켓(SSM)들이 주변의 재래 및 소시장의 소비자들을 ‘블랙홀’, ‘빨대’(대형교회 담임목사 입장에서 볼 때 불쾌한 표현이지만 어렵고 힘든 미자립 교회의 목사들에게는 그 표현에 공감할 수 있다)같이 빨아 들이 듯이 많은 작은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교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⁵⁴⁾.

51) 건강한 교회 p. 62.

52) 두 날개를 말하다 p.215.

53) 풍성한 교회 이야기 p.75-76.

대형교회는 자기 교회에 찾아온 새신자들이 전도해서 인도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하지만 많은 새 신자들이 수평 이동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유는 한국전체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통계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작은 교회들은 악순환에 처하게 됩니다. 신자들의 수평이동과 그 결과 작은 교회들은 ‘자립’과 ‘생존’에 급급한데 그들 교회가 어떻게 다음세대를 위한 ‘멋지고 세련된’ 교육적 환경과 재정적 뒷받침 그리고 인적자원의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필자가 제안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된 공동체성 가운데 중·대형교회가 작은 교회와 함께 하는 상생의 노력 가운데 그들과 신앙적, 정서적 일체감을 이루는 구체적 행동들이 필요 합니다.

공동체성의 위기는 경제적 양극화 현상과 이기주의적 사상⁵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고린도서 및 에베소서)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필자는 오늘날 한국사회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공동체성 회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양극화 심화 가운데 많은 중산층 및 서민들은 대한민국의 수출호조로 거시통계지표는 좋다고 하지만 서민들의 경제적 체감 온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가난하고 더 어렵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가운데 경제에서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시대의 화두입니다.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의 『정의란 무엇인가』 책이 주목을 받는 것도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잔혹함 가운데 ‘분배의 정의’를 핵심으로 하는 ‘공동체주의’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 의식을 두 날개 시스템의 열린 셀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54) 한국 및 부산지역에 작은 미 자립 교회들을 돕는 훌륭한 중·대형교회 목회자들도 있음을 인정한다.

55) 리차드 돌킨스(Richard Dorkins)의 『이기적 유전자』 책 참조

강조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

사실 한국교회의 공동체성 상실은 자본주의적, 개인주의적 세속화의 극치입니다. 전국교회의 현실을 볼 때 작은 교회 및 중·대형교회 서로 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정글의 법칙이 경제 영역만이 아니라 교회의 영역 오직 개 교회의 성장신화에 매몰된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에게도 자본주의적 속성과 궤를 같이하면서 가장 자본주의적 모순의 모습이 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자는 항변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교회는 세상보다 낫다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만이요 오만입니다. 아무리 많은 선을 베풀더라도 늘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의보다 나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 할 때가 되었나니”(벧전 4:17)라는 말씀 가운데 이 세속화된 교회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주적 몸’으로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도록 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전 12: 13).

두 날개 프로그램은 교회의 우주적 몸으로서의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를 돕는 모습이 귀합니다. 또한 이 공동체성을 풍성한 교회의 셀 그룹에 철저하게 적용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가족 ‘같은’ 셀은 셀이 아니다. 셀은 가족이라고 한다. 가족 같아서는 결코 가족이 될 수 없다. 가족은 한없이 용서하는 공동체이며, 끝까지 기다려주는 공동체다. 가족의 책임은 무한하며, 끝내 가족은 죽기까지 사랑한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그러하다. 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교회의 핵이라고 한다. 그것은 셀이 곧 가족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디자인 하신 가장 완벽한 가정의 모습이다. 셀이 가족인 까닭은 주님의 사랑으

로 모두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⁵⁶⁾도 그렇게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 된 가족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기에 힘썼다.”⁵⁷⁾

프랑스 종교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은 그의 책 『자살론』에서 프랑스 및 유럽의 자살을 정밀하게 포괄적으로 연구한 뒤 얻은 답 중의 하나는 개신교도 성도가 천주교 성도보다 자살률이 공통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개신교가 천주교 보다 결속적과 공통체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⁵⁸⁾. 이 공동체성의 강조는 두 날개의 시스템의 한 날개 셀을 통한 사랑의 교제와 가족의 개념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 ▶ 셀의 열린 모임 장소: 김성곤 목사에 의하면 두 날개 셀 그룹의 “전도는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땅 끝이라는 의식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는 각 직장, 대학, 가정, 병원에서 열린 모임을 열어 관계 전도를 중심으로

56) 존 스토틀(John Stott)는 예루살렘교회의 이상적인 네 가지 모습을 ‘배우는 교회’,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묘사한다. 브루스 밀런(Bruce Milan)은 그의 『복음주의 조직신학』이라는 책에서 교회의 생활의 핵심 4가지 요소로 예배, 교제, 봉사, 증거로 보았다. 스토틀와 밀런이 교회생활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요인들은 예배, 교제, 전도(증거)였다. 이 3가지 가운데 교제는 사랑의 실천으로 유무상통하는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교제였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가운데 이 성경적 공동체성을 예루살렘교회에서 배울 수 있고 풍성한 교회 셀에서 그것을 강조했다.

57) 건강한 교회 p. 62.

58) 에밀 뒤르켐/임희섭 역 자살론 삼성출판사 1981. 자살이 개신교에서 더 많은 이유의 또 다른 요인으로 만인제사장직에 의해 개신교도는 신부를 통한 고해성사 없이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신부에게 어려움을 토로하고 해결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신교도에게 목사(Pastor)가 있다고 하지만 이 사목의 개념이 천주교 신부보다는 고해성사라든지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장치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

소그룹 전도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⁵⁹⁾ 이 셀 전도방법은 사도바울의 방법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세속적 장소를 택함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바울이 유대회당에서부터 복음전파를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을 때, 그는 회당에서 물러나와 그 대신에 중립적 건물로 옮겨갔습니다. 존 스토트는 사도바울의 전도 방법에서 장소 사용의 유연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세속적 사람들에게는 세속적 건물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디도 유스도의 집을 사용한 것은 가정전도 일 것이며 두란노 서원을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강의식 전도일 것이다. 교회에는 결코 발을 들여 놓지 않을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의 집에 와서 격의 없는 이야기를 듣고 자유로이 토론에 참여하기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대학이나 어떤 다른 중립적이고 공개적인 장소에는 변증적, 해설적 기독교 강의를 할 만한 매우 중요한 장소들이 있다”⁶⁰⁾.

2) 바울의 복음전도의 특징

스토트는 바울의 복음전도와 우리의 전도방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복음전도는 너무 교회적인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바울은 또한 복음을 세속 세상으로 가지고 나갔다.”⁶¹⁾

59) Ibid.

60) 존 스토트 땅 끝까지 이르러 IVP, p. 374.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바울의 전도방법은 오늘날 두 날개선교회의 열린 셀 전도방식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5. 결어: 제안, 적용, 도전 및 사람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그들이 그렇게 보내고 싶어 했던 내일이였다.”

위의 글은 시간의 소중함과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할 지혜를 가르쳐 주었던 소포클레스의 명언입니다. 이 글은 기독교 작가 조창인의 『가시고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인용되고 회자되어 더욱 더 주목받았던 경구이기도 하지요, 필자가 이 글을 인용하는 이유는 풍성한 교회와 참여하는 목회자들의 소중한 시간의 헌신이 “주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면 첫째, 두 날개 시스템이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에 복음의 도구로 확산해가는 방안입니다. 지금도 두 날개 운동이 전 세계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에게 귀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성경적, 신학적, 목회적, 선교적 차원에서 두 날개 교수 선교회, 참석한 각 지역의 목회자 그리고 기독교 교회의 각 영역에서 사역하는 전문가의 협력으로 ‘복음의 수출’ 도구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수출이라고 할까요.

둘째, 두 날개 국제 컨퍼런스의 중요한 순서에 외국인이 참여하면 어떨까요?

61) Ibid.

두 날개 컨퍼런스에서 국제적 성격으로 미국, 중국 대만 및 일본의 강사가 참여했던 것은 참 좋았습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4 나라들이 상호간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 됨을 강조하는 일본 및 중국 목사의 설교와 강연을 들으면서 성 어거스틴의 그의 주저 『하나님의 도성』에서 “한 믿음 없이는 한 세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감동적이고 인상적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풍성한 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재즈 풍 흑인영가 찬양과 마지막 날 폐회 예배 때 국악찬양도 매우 신선했습니다. 이 순서들에도 컨퍼런스에 참석한 외국인을 참석시키면 어떠했을까요? 물론 언어소통과 문화의 차이 큐시트에 의해 정교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그들이 참여할 때 고도의 숙련도를 요하는 부분에 실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미리 잘 준비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두 날개 운동이 지향하는 만인 제사장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순서에 교회 내 평신도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켰듯이 참석한 외국인들에게 그리스도 우주적 공동체 몸으로서 참여하게 한다면 신선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국제화되고 다문화 사회로 이동하는 과정에 말입니다. 종교개혁의 모토는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est*”(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 되어야 한다)이었습니다. 모든 제도와 조직은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조명되어 개혁되어야 합니다. 두 날개 훈련 프로그램도 끊임없이 개혁되어 복음의 본질은 변화되지 않되 시대마다 문화와 상황의 옷을 입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제안합니다.

적용

두 날개 운동은 오늘날 우리사회 현상과 관련해서 적용하기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날개에서 가장 강조하는 제자화, 전도 및

재생산입니다. “제자훈련의 결론은 재생산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제자훈련을 결론지으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고 하신 것처럼 우리교회의 제자훈련의 궁극적 목적은 역시 가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⁶²⁾

지금 대한민국은 일본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밟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⁶³⁾,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급증하는 고령화 인구, 높은 이혼율과 급증하는 자살율 그리고 청소년 문제 등입니다. 이러한 문제들 중심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선교의 땅 끝’은 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북한도 될 수 있지만 무너져 가는 가정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복음의 능력’과 ‘영적 야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특히 철저하게 헌신된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김성곤 목사의 표현처럼 ‘막달라’(막 달라고 부르짖기만 하고 헌신이 없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Lordship)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헌신하는 제자도에 달려 있습니다. 디트리히

62) 건강한 교회 p. 119.

63) 저 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회의 전 방위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언론들은 (2009년도 조선일보 및 중앙일보 자료) “한국, 출산율 꼴찌……. 40년 뒤 인구 420만 명 줄어든다.”고 보도 했다 (조선일보 2009-11-19, 중앙일보 2009-11-19) 유엔이 발표한 ‘2009 인구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평균 출산율이 2.54명인데 한국은 1.22명이고 한국 여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09년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186개국)에 따르면 국내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21명)에 이어 세계에서 둘째로 적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출산율이 전 세계 186개국 중 185위였습니다. 이 수치는 유엔인구기금(UNFPA)이 과거 5년의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된 것이라는 것이 더 충격적입니다. 2008년 통계청에서 집계한 국내 출산율 1.19명을 대입하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가 됩니다. 출산율은 선진국 1.64명, 개발도상국 2.7명, 저개발국 4.2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선진국 가운데서도 가장 낮습니다. 차세대를 위한 복음화 전략에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 합니다. 이슬람 신도들의 증가하는 숫자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라(모슬렘의 전 세계 신도 숫자 통계 중 높은 출산율에 의한 자연증가가 가장 많습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잠 14:28).

본헤퍼(Bonhoeffer)가 그의 책 『제자도(Discipleship)』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를 위하여 죽어라”고 부르신 것처럼 죽음과 생명을 헌신한 제자도 없이는 이 만만하지 않은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과 아성적 영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런 문제들은 다원적, 다층적, 총체적 성격을 안고 있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융합(融合, Fusion)적·통섭(通涉, Consilience)적 관점과 사고 없이 해결하기 힘든 것 들입니다. 이것은 인간 자체가 지니고 있는 복잡성 및 다면성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교회들이 ‘각개 약진’ 할 때 문제는 악순환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총체적 선교’로서의 협력(Network)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 하느니라”(전 4:10-12). 두 날개 운동은 국내와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과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기적 협력(Network)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과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귀한 ‘디딤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전

2002년 제 1회 컨퍼런스를 개최할 당시 풍성한 교회는 출석 성도 300여명의 작은 교회였고 이런 규모의 일을 시도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성공한 개인, 교회 및 집단에는 도전 정신, 기업가 정신이 있었습니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그의 책 『기업가 정신』에서 이 도전정신과 기업가 정신이 가장 왕성한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현대 자동차, 조선 산업과 포스코의 철강 산업의 도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에 대한 도전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들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볼 때 아디다스(Adidas) 광고 카피가 생각납니다.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습니다.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 기업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성장 ‘정체의 땃’에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도전 정신으로 나아가면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줄 압니다. 누가복음에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반문할 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풍성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참석한 모든 일선 목회자와 사모님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람.

사람만이 희망이다

희망찬 사람은

그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좋은 세상

사람에서 시작 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글/박노해

‘사람만이 희망’?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듯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고전 3:6). 두 날개 시스템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성공 여부는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에 달려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한 사람”, “악하면서 힘센 사람이” 아니라 “착하면서 힘세고 실력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영성과 야성”, “성경(Text)과 상황(Context)”, “복음과 문화”, “지성과 감성”, “강함과 부드러움”, “이론과 실천”의 균형과 조화의 인재로 육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재가 전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혹자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강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전부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사람의 중요성을 3가지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Steve Paul Jobs), 사도바울, 맥도날드의 예.

첫째, 애플(Apple)의 스티브 잡스(Steve Paul Jobs)입니다. 한 사람이 세계 스마트 폰을 주도해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도전정신, 창조적 혁신, 철저한 세밀함(Detail), 인문학에 기초한 예술적 심미성 말입니다. 그 배후에는 자기가 창립한 회사에서 쫓겨나는 서러움과 한(恨)이 오늘의 그를 만들었습니다. 췌장암이라는 병이 그를 강철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벼랑 끝’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규정된 제도와 시스템만이 스티브 잡스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도적 교육과 자신도

전혀 예기하지 않았던 ‘광야’와 ‘잡초 같은 생명력’이 그를 비범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요셉, 모세가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서러움, 한, 광야와 벼랑 끝이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I-Pod, I-Phone으로 공전의 대히트를 친 뒤 I-Pad를 출시했을 때 시장과 사람들의 반응은 ‘글쎄요?’ 이었습니다. 반신반의했습니다. I-Pad는 개인 PC도 아니고 핸드폰도 아니고 휴대용으로 적절하지도 않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과 예측은 “유쾌한 오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스티브 잡스의 창조적 도전정신, 혁신 그리고 시장의 필요를 간파했던 결과였습니다. 어떤 점에서 애플은 표준화를 선도하고 다른 제품이 그 흐름에 따라오도록 주도했고 그 제품에 익숙한 소비자는 계속해서 그 제품을 사용하는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선순환’(Positive Feedback) 구조를 이루었습니다. 혹자는 필자의 해석과 접근이 너무 세속적이고 성경적 프로그램에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점은 결국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와 두 날개가 지향하는 인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성경의 원칙에 충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속에 성경의 유전자(DNA)와 피(Blood)가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Stigma)을 지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성경적 야성과 영성의 생명력 없이 단지 현대성 및 문화만의 강조는 ‘세련되고 멋진’ 것 같지만 혼합주의, 세속화에 빠져 ‘날라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것을 적용할 상황과 환경을 잘 알도록 무장시키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와 교회가 복음과 영성은 있는데 현대성과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영성만을 고집한다면 현대인들과 특히 젊은이들에게 시대착오적이고 ‘구닥다리’ 같이 비쳐져 ‘갑갑하고’ ‘답답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과 상황(Text & Context), 복음과 문화(Gospel & Culture)를 잘 알더라도 그것을 적용할 시기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저자는 “천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있다고 했습니다. 잠언 저자의 지적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25:11)입니다. 이 타이밍을 위해서 성령님께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인재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방언, 병 고침과 기적을 행하는 것도 그 열매 중의 하나이지만 더 포괄적으로 본질적인 것은 ‘예민함’, ‘민감함’, ‘섬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대와 사람에 대한 예민함과 민감함입니다. 이런 민감함을 사도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상 제물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전 8:11-13).

둘째,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앞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 요소(성경과 복음, 상황과 문화 그리고 성령)를 가장 균형 있고 조화롭게 실천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역사가 헨리 채드윅(Henry Chadwick)은 그의 선교의 성공 요인을 “그의 다방면에 걸친 고도의 능력들과 그가 상대하는 대중들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자신을 적응시킬 수 있었던 적응성” 혹은 유연성(Flexibility)으로 보았습니다⁶⁴. 이런 사도바울이 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습니까? 이 유연성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했던 것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

64) 헨리 채드윅/서영일 역, 초대교회사. 기독교문서선교회 p.23.

도의 종이 아니니라”(갈 1:10). 따라서 그의 유연성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카멜레온처럼 변색하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고전 9:22).

사도 바울의 이 유연성을 사도행전 독자들은 여러 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대상에 따라 복음을 접근하는 접촉점과 방법이 달랐습니다. 첫째로,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비시디안 안디옥에 방문했을 때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을 접촉점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습니다. 둘째, 사도행전 14: 17절에서 사도바울은 루스드라에 있는 농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했습니다. 대상에 따라 유연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루스드라 농부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자연 현상이라는 일반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했습니다. 셋째, 사도행전 17장의 나타나는 아텐에서 설교 대상은 헬라의 지식인, 종교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종교성을 접촉점으로 사용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설교의 결론에 가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참고 행 17:30-31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특히 17장에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유대인들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들이 사용하는 신적인 존재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사용된 헬리어 원어는 ‘아테네의 사투리’였다고 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선교적 접근법에 대해 스토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복음전도에 대한 접근법이 지니고 있는 유연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알고 있으며 볼 수 있는 그들 주위의 자연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 그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사람들이 세속화된 때에는 진정한 인간미, 보편적인 초월への 추구, 사랑과 공동체에 대한 갈망, 자유에의 추구, 또는 개인의 중요성 등에 대한 열망 등이 그 접촉점이 될 것이다.”⁶⁵⁾

사도바울에 있어서 그의 복음 전파의 접근법을 요약하면 성경, 상황, 그리고 성령의 인도의 균형과 조화의 유연성입니다. 풍성한 교회의 두 날개 시스템과 지역교회와 그 목회자들이 이것을 가르치고 배워 적용하면 각 교회들은 건강한 성경적 교회의 두 날개로 비상할 것입니다.

셋째, 기업 경영의 예로 사람의 중요성을 들어보겠습니다. 기업 경영의 요체는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에 달려있습니다. 앞에서 맥도날드의 표준화를 언급 했습니다⁶⁶⁾. 그런데 최근 맥도날드회사에 대한 경영평가 조사결과 고객들에게 4대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버릇없는 직원’, ‘느린 서비스’, ‘더러운 매장’, ‘주문과 다른 음식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맥도날드가 중시했던 업무처리 원칙과 정확히 반대되는 결과였습니다. 품질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 파라슈라만 교수는 “이런 현상은 주로 제대로 된 직원이 없거나 직원들의 업무지침을 지키도록 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없을 때 나타난다”고⁶⁷⁾ 지적했습니다. 필자는 이 지적에 대해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맥도날드의 부진의 원인은 첫째, 전 세계적으로 건강 및 웰빙에 대한 관심과 함께 패스트푸드가 비만을 초래하는 고칼로리 제품이라는 인식이 커져가면서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맥도날드의 표준화가 모든 나라의 상황과 환경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커피전문점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화에 근거해서 미국, 한국, 일본이든 스타벅스는 매장의 외장·내장의

65) 존 스토틀 p.273.

66) 논문 p.8 참조.

67) 조선일보 2011-4-23 C6면

장식과 음악까지 똑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준화에 의한 두 다국적 기업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토종 햄버거 롯데리아, 커피는 국내토종 커피 빈(Coffee Bean)과 엔젤리너스(Angelinus)에 잠식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표준화라도 받아들이는 나라의 환경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없고 버림 받습니다. 둘째, 소비자들의 맥도날드에 대한 4대불만 원인은 표준화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제대로 된 직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날개 훈련도 아무리 좋은 양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운용하는 지도자가 “제대로 되어있지”않으면 맥도날드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두 날개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이 어불성설같이 여겨질 수 있지만 진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과 상식 가운데 있습니다. ‘상식’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든 믿지 않은 자이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보배로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참석한 훈련원들이 “제대로 된” 사역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함께 두 날개 시스템의 철학과 각자의 ‘경건’과 ‘인격’의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두 날개 시스템이 강조하는 “성경적 원리”와 맥을 같이 합니다. 두 날개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하드웨어 속하는 ‘비전’, ‘가치’, ‘원리’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합니다. 이 중요한 3가지 핵심을 놓치고 프로그램만 지역교회에 이식한다면 사람과 교회는 지치고 시간과 돈 그리고 성도의 귀한 에너지만 낭비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성경적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돕는데 함께 지혜를 모아야합니다. 공생공사(共生共死)입니다. Soli Deo gloria!(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참고문헌

- 김성곤 건강한 교회 도서출판 NCD 2006.
- 김성곤 두 날개를 말한다 두 날개 2011.
- 김성곤 풍성한 교회 이야기 두 날개 2010.
- 김성곤 목사라서 행복합니다 두 날개 2010.
- 김성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날개 2010.
- 김성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두 날개 2009.
- Augustine, City of God. Image Books, Doubleday , New York. 1958.
- B.B. Warfield, Calvin and Augustine,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80.
- Thomas 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 Chicago, 1970.
- J. I. Packer, Evangelisim & The Sovereignty of God IVP 1961.
- Grunlan and Mayers, Cultural Anthology, Zondervan, 1979.
- Charles Kraft, Christianity in Culture, Orbis 1990
- Reid, Stanford W. 1983. Calvin's Geneva: A missionary centre. The Reformed Theological Review 42
- Leland Ryken, Worldly Saints, Zondervan. 1986.
-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 Westminster 1989.
- Jonathan Edwards, Religious Affections, Multnomah, 1984.
- 존 스토티/정옥배 역 땅 끝까지 이르러 IVP, 1995.
- 알버트 월티스 지음/양성만 옮김, 창조·타락·구원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9.
- 헨드리쿠스 벌코프/황승룡역 성령론 성광문화사 1985.
- C. A. 반 퍼슨 지음/손봉화·강영안 옮김 몸·영혼·정신: 철학적 인간학 입문, 서광사 1987.
- 재임스 패커/ 정옥배 옮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6.

- 루돌프 오토 지음/길희성역 성스러움의 의미, 분도출판사 2009.
요아힘 바흐/김중서역 비교종교학 민음사, 1988.
리처드 도킨스/홍영남역, 이기적 유전자, 을유문화사, 2010.
에밀 뒤르켐/임희섭 역 자살론 삼성출판사 1981.
한국 문화인류학회 처음만나는 문화인류학 일조각 2010.
피터 드러커/ 이재규 옮김 기업가 정신 한국경제신문 2004.
데이빗 왓슨 지음/문동학 옮김 제자도 두란노 서원 1987.
브루스 밀턴/김정훈 옮김 복음주의 조직신학 개론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롤랜드 알렌/홍병룡 옮김 바울의 선교 VS. 우리의 선교 IVP 2008.
새뮤얼 헌팅턴 지음/이재희 옮김 문명의 충돌 김영사, 1998.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